전작권 전환 합의, 한국에 남겨진 과제는

비핵화·전력 증강 비용 마련 '큰 짐'

우리 군이 2012년 4월17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이전에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군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가들은 당장 5년 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여건, 군사적인 준비, 국내외 정치상황 등 3대 요인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략·군사·정치적 여건 해결돼야

◇**한반도 비핵화**=전작권 전환과 북한 핵문제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전작권과 북한 핵을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 위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던 남북 군비경쟁이 북한의 핵 보유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안보 위협은 우리 군의 전작권 단독행사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핵 vs 재래식 전력'이란 비대칭전력 구조로 바뀐 상황에서 군의 전력증강계획과 전·평시 작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 핵은 군의 전작권 단독행사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사적인 여건**=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군사적인 준비도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작년 8월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기까지 필요한 능력과 여건 마련을 위한 세부일정(타임라인) 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지휘구조 및 작전구조 등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하고 운용할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어 2011년까지 연합방위체제 하의 전략기획 및 계획체계를 한국군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체제로 전환, 정비키로 했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F-15K급 전투기, 7천t급 이지스 구축함, 1천800t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 대북억지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전력을 확보하는데 151조원이 투입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예산도 필요할 전망이다.

KIDA의 한 전문가는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군사적 준비상황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전작권 환수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정치지형 변화**=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과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군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재협상 가능하지만 현실성 없어

즉, 현 정부 내에서 '2012년 4월17일 전환'키로 합의한 사항을 다음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21일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전작권을 이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양국 모두 '심리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다음 정권이 이번 합의사항에 공감하지 못할 경우 재협상 요구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연합뉴스

'소행성' 지구 충돌을 막아라!

NASA, 내달 워싱턴서 국제회의 개최

굴착기 갖춘 무인우주선 투입 등 소개될 듯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큰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올 때 영화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핵무기를 쓰면 문제가 해결될까.

25일 영국 텔레그래프의 일요신문인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영화 '아마겟돈'에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한 것과 같이 핵폭탄을 동원한 방식의 파괴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천문학자는 대형 소행성에 핵무기를 폭발시키면 완전히 부서지는 대신 여러개의 '파편'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파편'들이 지구로 떨어지면 재앙이 벌어지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유럽우주국(ESA)은 각각 지난해에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일간의 일정으로 내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NASA 주최로 열리는 소행성 충돌 방지에 관한 회의에서는 새로운 방법이 소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NASA는 현재 무인 우주선으로 소행성의 한쪽 면에 굴착기들을 투하한 뒤 굴착기들이 소행성을 파들어가며 만들어낸 토사를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뿜어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여년에 한번씩 지축구장 크기만한 소행성이 충돌해 왔는데 지난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에 소행성이 충돌해 핵폭발과 맞먹는 피해를 낸 지 100년이 거의 다 되고 있어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지구 침략'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軍 원로들, 전작권 전환 강행에 반발

성우회·향군회장 등 긴급모임…28일 '항의 성명서'

한·미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26일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성우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성우회 사무실에서 김상태 회장 등 8명의 원로들이 참석한 긴급회동을 갖고 전작권 환수가 너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8일 오전 11시 향군회관에서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원로 70여 명이 모여 전작권 합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김상태 회장은 "전작권 이양 합의로 국가안보가 염려스러워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군 원로들이 모이게 됐다"고 회동 취지를 설명한 뒤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이양과 6자회담을 매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욕 차이나타운의 설

25일 뉴욕시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설날 퍼레이드에 참가한 화교 여성들이 춤을 추며 행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빠르면 2010년부터 개성서 골프 즐긴다

이르면 2010년께 개성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현대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2단계 개발사업에 40만평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가해 복합 관광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 관계자는 "일단 2단계에 40만평 규모의 골프장 1곳을 만들고 이후 비슷한 규모로 3단계에 2개를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공단 조성에 따른 부대 시설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의 경우 공장지대로 사용하지만 2단계부터는 레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50만평의 부지 가운데 100만평을 18홀 짜리 골프장 1곳과 기타 오락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통일부의 복안대로 2단계 부지공사가 2009년까지 완공된다면 골프장 또한 비슷한 시기인 2010년께 조성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

軍 대화 채널 활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對北 '군비통제' 협의 추진 의미는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남북 군사 당국 간 대화의 정례화를 통해 '군비통제'의 토대를 마련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군사대화 채널을 활용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경우 6자회담에서 합의한 당사국 간 평화체제 포럼의 가동과 함께 평화체제를 겨냥한 두 가지 트랙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비통제 언급의 의미**=통일부가 연두 업무계획 보고에서 군비통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를 포함한 다자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전쟁 상태'에 있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기초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평화체제포럼과 남북대화로 굴러갈 양대 트랙이 상호 작용을 주고받으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1992년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제1장 4조에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제2장에서는 남북불가침을 위한 내용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핫라인 개설과 군비통제**=올해 업무계획상 추진계획을 보면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을 구체화한 '불가침 부속합의서' 내용 중 쉬운 것부터 우선 이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1992년 9월 17일 발효한 불가침 부속서는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일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북측과 협의할 내용으로 거론한 것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군 인사교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조치 등 긴장완화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력 운용 통제 및 상호검증 등 군비통제의 토대 마련 등이다. /연합뉴스

中 春節만 지내고 나면…

기업들, 대규모 이직에 '골머리'

중국에서는 화이트칼라 계층으로 기업의 핵심인력인 이른바 '백·골·정(白·骨·精)'이 춘제(설날)를 지낸 뒤 대규모 이직에 나서는 것이 여전해 기업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백·골·정'은 화이트칼라, 기업의 핵심, 엘리트를 의미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마(馬)모씨는 다음달부터 5년간 일해온 지금의 직장을 떠나 음료회사로 옮기기로 결심을 굳혔다.

중국에서 춘제가 끝난후 대규모 이직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장기 연휴를 보내면서 정보교류가 가능한데다 연말 보너스를 챙겨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중화영재망이 최근 전국의 15개 업종 700명의 급여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가 춘제후 보다 나은 직장이 있으면 자리를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